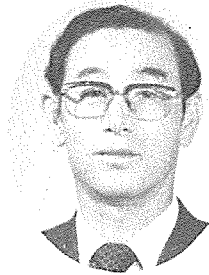


照明實錄 木花(綿)의 由來

略 歷

1928년 慶北 義城에서 出生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卒
 農産物檢査所 大邱支所 庶務課長
 農業公務員教育院 教學課長
 社團法人 全州李氏宗約院 典禮理事
 人間文化財(56號 宗廟祭禮)
 各 教育院 講師(民族史觀)
 實錄研究家



李 在 範

〈實錄研究家·人間文化財〉

목화(木花:綿). 이것은 우리들의 의(衣)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물건이다. 이 귀중한 목화가. 어느시대에 누가 어떻게하여 이나라에 보급하였는가. 그 경위를 왕조실록(王朝實錄)의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12년. 조정에서는 원(元) 나라에 계품사(計稟使)를 보냈다. 정사(正使)에는 좌시중 이공수(李公遂)가 되었으며, 서장관(書壯官)에는 좌정언 문익점(文益漸)이 선발되었다. 계품사 일행이 원 나라 조정에 들어가니, 원 나라 황제는 그들을 불러놓고 중대한 의논을 하였다.

『고려의 임금인 공민왕은 짐의 뜻을 잘 따르지 아니하여 실로 무엄한 일이다. 짐은 이제 공민왕을 폐하고 다른 임금을 세우고자 하노라.』

실로 날벼락 같은 말이었다.

문익점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폐하. 그것은 심히 부당한 하교인가 하오이다. 고려국이 비록 작은 나라이기는 하오나 동방의 예의의 나라인데 어찌하여 원나라에

서 임금의 폐립(廢立)을 함부로 한다 하오이까.』

원황제는 크게 노하였다.

『무엄하다. 고려의 서장관 주제에 어느 안전에 반론을 세우느냐. 저놈을 끌어내어 변방인 검남(劍南)으로 유배토록 하라!』

이렇게 되어 문익점은 원 나라 변방인 검남으로 귀양을 갔다.

그때 고려의 공민왕은 원 나라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아니하여 원제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

문익점. 그는 경상도 진주(晉州) 강성현(江城縣)에서 태어났으며, 고려 공민왕 9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곧 김해부 사록(司錄)으로 있다가, 순유박사(淳諭博士)를 거쳐 좌정언으로 승진되었다. 그 성품이 곧고 총명하였으므로 특히 서장관으로 선발되어 원 나라에 파견되었던 것이다. 그는 임금을 옹호한 탓으로 원제의 노여움을 사서, 멀고 먼 이국땅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는 삭풍이 휘몰아치는 검남 유배지에서 쓸쓸한 귀양살이를 하다가 다음 해에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낮설은 이국 길을 걸어 오던중. 문득 그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다. 넓은 들밭에 하얗게 피어있는 소담스러운 눈송이들. 그는 밭을 멈추고 유심히 살펴 보았다.

『흫지! 이것이 옷(衣)을 만든다는 목화로구나』

허리를 굽혀 목화 송이를 만져 보았다. 그러자 그를 호송하던 원 나라 관원이 황급히 제지했다.

『아니되오. 이것을 함부로 만지면 또다시 귀양을 가야 하오.』

그때 목화는 원 나라에서 엄중한 통제를 하고 있는 귀중한 물건이었다. 특히 외국에 목화를 반출하는 행위는 그나라 국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었다.

『아, 아니요. 내 설사가 나서 잠시 변을 보려는 것이오. 잠시만 저쪽에서 기다려 주오.』

관원은 가끔씩 뒤를 돌아보면서 저쪽으로 갔다. 익점은 변을 보는척 하면서 황급히 몇송이의 목화를 따서 바지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태연히 일어섰다.

『자. 어서 잡시다』

문 익점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소중히 감추어온 목화를 헤쳐보니 10여개의 씨앗이 들어 있었다. 문 익점은 공민왕 13년에 고향인 진주에 내려갔다. 그는 고향 사람인 정천익(鄭天益)을 찾아가서 목화씨앗을 내어 놓았다.

『자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것이 옷을 만드는 목화라네. 우리 둘이서 나누어 심어 보세.』

그는 절반인 5, 6 개의 씨앗을 천익에게 나누어 주어 따로이 재배토록 하였다. 그때 천익은 전객령(典客令) 벼슬을 그만두고, 놀고 있던 참이었다.

이리하여 문 익점과 정 천익은 목화씨앗 5, 6 개씩을 따로 따로 나누어 재배했다. 그리하였더니 익점이 심은 씨앗은 전혀 수확을 거두지 못

하였으며 오직 천익이 심은 씨앗중에서 요행스럽게도 단 한그루가 살아남았다. 그 한그루의 목화나무에서 100여개의 열매가 맺었다. 실록에서는 문 익점이 재배한 결과에 대하여 「불영(不榮)」이라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전혀 싹이 트지 않았거나 혹은 싹이 텄다 하더라도 제대로 영글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아물튼 익점은 재배에 실패했으며, 오직 천익이 심은 씨앗중에서 단 한그루의 목화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이었다.

누가 재배한 것이면 어떠한가. 분명한 것은 이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목화를 재배하여 그 씨앗을 얻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므로 이제는 널리 온나라안에 보급하게 되었지 아니한가.

『참으로 장하이. 그때의 재배기술이 아니었다면들 하마트면 그 귀중한 목화 씨앗을 얻지 못할뻔 하였느니.』

익점은 천익의 어깨를 치면서 그 노고를 치하했다.

『무슨소리 그 씨앗이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만리길 원나라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던가.

그것도 죽음을 무릎쓰고 말일세.』

천익은 그 공을 익점에게로 돌렸다.

이렇게 얻은 목화 씨앗을 천익은 해마다 심고 또 심어서 3년을 거듭하였더니 이제는 많은 씨앗으로 불어 났다.

공민왕 16년에 이르러 그는 드디어 향리 사람들에게 그 씨앗을 나누어 주어 널리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이나라 방방곡곡에는 목화가 재배 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것이 이나라에 목화가 보급된 진상이다. 물론 문 익점의 공도 컸거니와 그 씨앗을 정성껏 가꾸어서 드디어 영글은 열매를 얻어 내는데 성공한 정 천익의 공로 또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역사에는 목화보급의 공로 그 전부를 문 익점에만 돌리고 있으며,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몇해 전에 크게 시비가 벌어진 「목화 비(碑)」사건을 우리는 아

적도 기억하고 있다. 그 내용인즉 목화비문에는 오직 문 익점만이 기록되어야 하며, 정 천익은 언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비였다.

그 후 어느날 원나라 중(僧) 홍원(弘願) 이 정 천익의 집에 이르렀다. 그는 목화를 보더니 두눈에 주루룩 눈물을 흘렸다.

『내가 고국을 떠나온지 몇해가 되었음에 이제 여기서 고국의 목화를 보게 되었구나. 이것이 나의 고국을 다시 봄이로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원나라에서 엄중히 통제하는 목화가 어떠한 경로에서 여기까지 이르러 재배하게 되었지.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그러나 내 굳이 그 연유를 캐지 않으리라(不圖其詳).』

그는 목화의 밀반출에 대하여는 굳이 따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면서 목화에서 실을 뽑아 베를 짜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를 친히 만들어 주었다. 천익은 홍원에게 크게 사례를 하려 했으나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목화를 널리 보급해서 모든 중생들이 그 혜택을 입게 하는 것도 부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었던가.』

홍원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리 떠나갔다. 천익은 홍원에게서 익힌 베짜는 기술을 가비에게 가르쳐서 드디어 베 한필을 짜는데 성공 했다. 그렇듯 베짜는 기술은 점차 널리 보급되어서 10

년이 넘지 않아 온 나라에 생활화 되었다.

이와같이 정 천익은 목화의 종자 수확으로부터 그 재배와 보급에 필생의 정성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 중 홍원의 힘을 빌어 베 짜는 기구와 기술까지 널리 보급을 한 그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음인지 목화가 국내에 널리 보급되자, 조정(고려)에서는 그 공의 전부를 문 익점에게만 돌려서 익점에게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를 제수하였다. 그뿐인가. 그가 조선태조(太祖) 7년 6월 13일에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자, 조선조정에서도 그에 대한 목화보급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강성군(江城君)으로 봉하였다. 그날짜의 태조실록에는 위에서 엮은 대로 문 익점의 공과 정 천익의 공을 아울러서 상세히 기록하면서도 그 포상에 있어서는 오직 그 영예의 전부를 문 익점에게만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뿐인가. 뒷날 세조때에는 그에게 「부민후(富民侯) 충선공(忠宣公)」을 더 하였고, 정조 때에는 그의 서원(書院)에 사액(賜額: 현판을 내려주는 것)을 하였다.

문 익점의 공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좋으나, 목화보급의 음지에서 정 천익이 기여한 공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